소매 판매의 회복세와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요약

2020년 1/4분기 이후 승용차 판매, 슈퍼마켓 매출 등을 중심으로 특별소비세,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가전, 가구 등의 판매와 무점포 소매점의 매출이 소비 증가를 주도했음. 반면, 의류, 가방, 화장품 등의 판매와 면세점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였음. 향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회복은 코로나19의 극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소매 판매액[1]은 2020년 4, 5월 들어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되고 재난지원금, 특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전년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혜택을 3월부터 부여하고, 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는 등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함
    - 재난지원금(중앙정부) 지급이 5월부터 개시되었으며 이는 소비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형태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개별특별소비세 혜택이 2020년 3~6월(70% 감면), 7~12월(30% 감면)에 부여되기 때문에 2/4분기에 가장 많은 혜택이 집중됨
  - 본고는 소비의 회복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경제 여건 변화가 소비재 유형별, 소매점 유형별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하고자 함

- 소비재 유형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비내구재가 소비와 세제 혜택이 부여된 자동차 소비가 증가한 반면, 대인 관계와 관련된 화장품, 의류, 가방 등의 소비는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표 1〉 참조)

1)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매판매액은 민간소비를 재화와 서비스로 구분할 때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식이나 이미용, 세탁 등에 지불되는 서비스 소비는 제외되어 있음

- 정부 지원책의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가전, 가구 판매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2020년 5월 승용차(전년 동월 대비 26.9%), 가구(32.1%), 가전제품(12.7%) 등의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소비 회복을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 많이 머물면서 가구, 가전뿐 아니라 음식료품, 서적 문구의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
- 반면, 대인 접촉과 관련이 있는 의복(-9.6%), 신발 및 가방(-13.6%), 화장품(-23.7%) 등의 소비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차량 연료의 경우 실질 소비보다는 휘발유 등 연료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상 기준 판매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상품유형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경상 기준)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4월	5월
합계		3.9	3.8	5.6	1.8	-1.3	-3.0	0.2
내구재		5.3	5.6	4.8	1.3	0.5	9.2	13.3
	승용차	3.3	1.8	6.6	1.5	1.1	20.8	26.9
	가전제품	12.4	11.2	12.0	-0.8	3.6	6.7	12.7
	통신기기 및 컴퓨터	0.7	7.0	-5.9	-1.9	-4.1	-1.8	-3.2
	가구	4.3	0.2	5.7	9.0	11.2	24.0	32.1
	기타 내구재	10.6	11.0	3.2	4.8	-6.4	-20.5	-16.9
준내구재		4.1	0.0	6.9	0.8	-18.5	-17.3	-6.2
	의복	3.1	-0.4	3.9	-1.4	-24.6	-21.6	-9.6
	신발 및 가방	7.9	0.4	9.6	5.9	-23.4	-29.5	-13.6
	오락, 취미, 경기용품	1.8	0.1	12.5	4.5	4.4	13.1	19.2
	기타 준내구재	6.2	0.7	12.5	1.6	-6.4	-11.1	-4.5
비내구재		3.2	4.6	5.5	2.4	5.2	-2.8	-3.1
	음식료품	5.0	4.3	4.0	1.7	9.7	5.7	7.2
	의약품	4.6	1.3	3.4	6.0	8.4	7.3	9.9
	화장품	11.4	4.6	15.9	16.2	-10.9	-22.8	-23.7
	서적, 문구	5.1	1.1	5.8	-6.5	-7.2	1.1	7.0
	차량연료	-5.3	6.9	8.3	-2.8	9.2	-13.1	-20.2
	기타 비내구재	3.0	5.2	-2.1	-0.8	1.5	-2.5	0.2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오락, 취미, 경기용품'의 판매도 2020년 4, 5월 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가정 내에서의 소비 활동이 소매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적인 성격의 오락, 취미 용품이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됨

■ 소매점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점포 소매점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면세점의 판매는 크게 하락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배달 위주의 무점포 소매점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경우 음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쟁 업태인 대형마트가 재난지원금의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정상적인 국제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면세점의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등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백화점과 전문소매점의 판매도 감소세를 보였음
  - 전문소매점의 경우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전문매장이 많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둔화되는 특징이 나타남

〈표 2〉 소매점 유형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경상 기준)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4월	5월
합계	3.9	3.8	5.6	1.8	-1.3	-3.0	0.2
백화점	3.0	-2.0	2.2	1.4	-18.7	-14.4	-7.5
대형마트	1.4	1.7	-1.0	-3.1	0.1	7.4	0.5
면세점	33.5	17.8	31.1	31.1	-25.0	-50.5	-51.2
슈퍼마켓 및 잡화점	2.0	2.8	1.9	-4.9	6.5	6.3	10.3
편의점	18.4	14.1	9.8	5.3	4.5	-1.2	1.6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1.3	4.8	7.5	-0.9	4.8	4.1	2.9
전문소매점	1.2	-1.3	0.5	-3.2	-12.1	-15.1	-5.0
무점포 소매	15.5	13.3	14.8	13.2	17.6	18.3	18.7

자료: 상동

■ 상품 유형별 또는 소매점 유형별 판매 추이를 볼 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뿐 아니라 특별소비세 및 재난지원금과 같은 경기 부양책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직접적인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느냐 여부는 코로나19의 극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KiRi